

게임 넘어 교육·치료까지... K-게임, 사회적 가치 넓힌다

부산 벡스코서 '지스타' 개막
넥슨, 7년 만에 메인 스폰서 북극 넷마블, 인기 IP 기반 신작 선보여 크래프톤, 액션 RPG 라인업 공개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가 14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지스타 개막식에는 강신철 조직위원장 겸 게임산업협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현석 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등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지스타 2024 메인 스폰서인 김정욱 넥스코리아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정우용 하이브IM대표 등이 함께 했다.

개막식은 지스타 2024 개최를 축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레머니를 한 후 관계자들이 함께 부스를 둘러보는 투어로 마무리했다.



강신철 조직위원장 겸 게임산업협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현석 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김정욱 넥스코리아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정우용 하이브IM대표 등이 특별 제작 버튼을 눌러 전시회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최빛나 기자

윤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스타는 게이머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게임 축제로 자리잡았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게임 강국으로 국민의 63%가 즐

기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가 됐다. 게임 분야는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치료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며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게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한 게임환경을 조성하고 신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게이머 권익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게임 더하기 등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스타는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Expand Your Horizons)'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된다.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B2B와 B2C 총 3350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현장에선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하이브IM 등 게임사들의 신작을 시연하고 컨퍼런스, 지스타 인디쇼케이스, 게임 코스프레 어워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넥슨이 7년만에 메인스폰서로서 300부스를 넘는 규모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지스타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준비돼 있다. 역대 코스프레 어워드 우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왕중왕전이 열린다. 게임문화 심포지엄, 한국 게임산업 정책포럼, 게임정책 공동세미나 2024 등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접할 수 있는 포럼들도 마련돼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몰입감 넘치는 게임 한 판 어떠세요?"

지스타서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존' HDR10+ GAMING, 세밀한 명암 표현 인기 게임부터 SNS 이벤트까지 마련

삼성전자가 오는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게임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오디세이 OLED G5(G50D)

▲오디세이 OLED G6(G60SD·G61SD) ▲오디세이 OLED G8(G85SD·G80SD) 등 올해 출시한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게임 전문 매체 '인벤'과 협력해 '인벤 플레이라운지'에 '올레디올레드(All Ready, OLED)' 체험존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오디세이 모니터 신제품으로 인기 게임인 '레고 포트나이

트', '오버워치 2' 등을 할 수 있다. 체험존 외에도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하이브IM 등 파트너사 부스에서 오디세이 모니터를 체험할 수 있다.

게임 체험 외에도 방문객들은 오디세이 모니터의 높은 주사율을 체험할 수 있는 '동체 시력 테스트'와 모니터 체험을 인증하는 'SNS 인증 이벤트'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차세대 화질 기술 'HDR10+ GAMING'이 적용된 하이브IM의 '아키텍

트: 랜드 오브 액자일' 게임은 명암을 세밀하게 표현해 극대화된 몰입감을 선사한다.

아키텍트 메인부스에서는 추첨을 통해 '오디세이 Neo G9', '무빙스타 일 M7'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체험존을 통해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의 압도적인 성능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모델이 지스타 2024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존 'All Ready, OLED'에서 오디세이 모니터의 높은 주사율을 경험할 수 있는 '동체 시력 테스트'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SKT 수험생 응원 이벤트 경품·T멤버십 혜택

SK텔레콤이 대입 수험생을 위해 최신 IT 경품, 공연·전시 할인, T멤버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0 수능 페스티벌' 이벤트를 1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0(영)'은 SKT의 만 13~34세 청년 고객을 위한 브랜드로, SKT는 수능을 치른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SKT는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을 한 2005~2006년생 수험생 대상으로 '0스타터 팩 이벤트'를 진행한다. T월드 0페이지에서 오는 27일까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1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북 프로 360, 100만 원 상당의 스탠바이미고, 80만 원 상당의 에어맥스 등 6가지 경품을 150명에게 제공한다. 미당첨된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에게는 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PBV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확산

기아, DHL코리아와 프로젝트 추진

기아가 물류업체 DHL 코리아와 목적기반차량(PBV)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친환경 물류 생태계 확산에 힘을 보탠다.

기아는 DHL코리아와 친환경 물류 운송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MOU는 물류 분야 친환경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뤄졌다. 기아는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PBV 관련 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DHL코리아는 2030년까지 물류 차량 100% 전동화 목표를 세웠다.

협약에 따라 기아는 2026년부터 첫 중형 PBV 'PV5'를 DHL코리아에 공급한다. 또 DHL코리아의 물류 현장 및 차량 운영 관련 특성을 파악해 DHL코리아의 물류 환경에 최적화된 PBV 모



DHL 코리아 한지현 대표(왼쪽)와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이 13일 기아 브랜드 체험관 Kia360(서울 압구정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델도 제작할 계획이다.

기아와 DHL코리아는 이번 협약으로 물류 시장 친환경 차량 도입을 확대해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아는 DHL코리아와의 협약을 계기로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 대상 협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협업 모델도 PV5에서 대형급 PV7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온세미 SSPMG, 전력 전자설계 효율성 향상

직관적 웹 기반 모델 생성기로 간소화

온세미가 직관적인 웹 기반 플랫폼으로 엔지니어의 다양한 모델 생성을 돕는다.

온세미가 14일 뷔르트 일렉트로닉(Wurth Elektronik)의 패시브 부품 데이터 베이스를 당사의 독보적인 셀프 서비스 PLECS·모델 생성기(SeIf-Service PLECS·Model Generator, SSPMG)에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온세미는 이번 통합을 통해 직관적인 웹 기반 플랫폼으로 복잡한 전력 전자 애플리케이션의 맞춤형 고정밀, 고충실도 PLECS 모델 생성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성능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다. SSPMG에 뷔르트 일렉트로닉의 수동 시스템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생성된 스위칭 손실 모델은 이전보다 더욱 높

은 정밀도를 달성한다.

SSPMG 기능은 온세미의 물리적인 확장 가능한 SPICE(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 모델은 반도체 물리학과 부품 제작의 실제 공정 변화를 바탕으로 하며, 회로에서 동작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SSPMG 손실 모델은 다운로드한 후 고객의 독점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사용하거나, 업계를 선도하는 온세미의 엘리트 파워 시뮬레이터(Elite Power Simulator, EPS)에 업로드할 수 있다.

EPS는 온세미의 엘리트SiC(EliteSiC) 제품군, 파워트렌치(PowerTrench) T10 MOSFET, 필드 스톱 7(Field Stop 7, FS7), IGBT, IPM에서 고객에게 회로 토폴로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